

교섭속보

- | | |
|---|-------------------|
| 주 | 1. 정년연장, 신규채용 |
| 요 | 2. 고정OT 월 20시간 |
| 요 |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
| 구 |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8월 21일(금) / 제 05호

5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0일(목) 10:0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사측 불참으로 미개최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0일(목) 12:0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사측 불참으로 미개최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5차 교섭, 성원미달로 미개최

어제 열릴 예정이던 5차 임·단협 교섭이 성원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몇 번이고 공문을 보내며 요청한 그 자리에, 회사측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분명히 요구했다. 본교섭을 주 2회로 늘리고, 실무교섭은 이와 별도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요구안을 발송한지 이미 4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교섭이 늦어지고 있으니 속도를 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고, 20일(목)의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8월19일 첫 회신에서 주 2회 교섭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시행 시점을 일주일 뒤인 8월 25일로 미뤘다. 또한 화요일은 실무교섭, 목요일은 본교섭으로 구성하여 8월 24일부터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박 공문을 보내 8월 20일부터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날 유감을 표명하며 두 번째 회신을 보내왔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조합이 요청한 것은 실무교섭을 차수에 끼워 넣어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교섭 자체를 주 2회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또한 8월20일 10시 임금교섭, 12시 단체협약 교섭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정작 오늘 교섭장에 회사측은 없었다. 교섭 시기와 방식을 두고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예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조합원을 해온 방식

어제 회사측의 불참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실패로 보기 어렵다. 요구안을 낸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안조차 내놓지 않은 회사가, 교섭을 서두르자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해서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답한 셈이다. 이것이 지금 회사가 노동조합을, 그리고 1053명의 조합원을 해하는 방식이다.

짧은 기간 동안 오간 네 건의 공문이 오갔다. 공문에는 매번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문서 위에 다짐과 실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노동조합은 문서로 오간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섭장에서 확인되는 만큼 회사를 평가할 것이다.

40여일이라는 시간의 무게

요구안을 낸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조합원들은 임금과 단체협약 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현장을 지켰다. 그 기다림에 화답해야 할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철회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교섭을 서두르자는 요청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매달 같은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조합원들이다. 회사가 이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

조합원 동지들에게 묻는다

지난 4차 교섭을 늦춰달라 했던 것도 회사측이었고, 노동조합은 긍정적인 안을 기대하며 수용했다. 5차 교섭을 또다시 늦춰달라 하는 것도 회사였고, 이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도 회사다. 대체 무엇을 두고 성실교섭이라 말할 수 있는가.

조합원 동지들에게 묻고 싶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현장속 하나하나의 관심과 참여다. 성원미달로 무산된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물려서지 않는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회사가 성실한 안을 들고 교섭 석상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제대로 논의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